

알아두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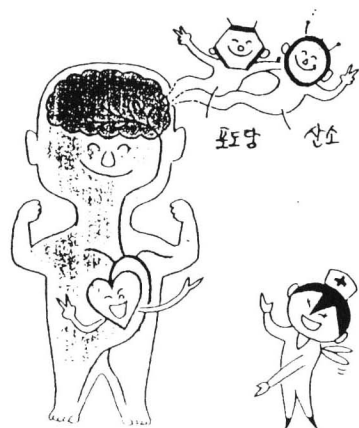
정상치(正常値)와 이상치(異常値)



■ 뇌

우리 몸중에서 조절중추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뇌가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가는 혈액의 유입량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뇌전체로 1분간에 흘러드는 혈액량은 약 830cc로, 이것은 1분간에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약 15%에 달하며, 근육전체에 흘러드는 혈액량과 거의 같은 양이다. 뇌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혈액중의 산소는 물론 포도당을 대단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5초간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
- 저혈압, 과로, 자율신경실조증이 일으키는 뇌빈혈
- 고혈압이나 저혈압에서도 현기증은 일어나지만 빈혈에서도 일어나는 점을 염두해 둔다.



■ GOT, GPT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에서 우려되는 질병으로 급성간염이 있다. 간장병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지나친 음주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급성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않더라도 걸리게 된다. 이 간장기능의 정상, 이상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혈액중 트랜스아미나제라는 효소를 측정한다. GOT는 8~40, GPT는 5~35단위가 정상치이다.

- 간세포는 정상적일때라도 조금씩 파괴되기 때문에 GOT, GPT는 혈액중에 8~40단위만큼 함유되어 있다.
- 급성간염이 되면 이 수치가 50~500이라는 수치가 된다.
- 알콜에 의한 간장병에 관해서는 여러설이 있으며 개인차도 크다.



■ 중성지방(T.G)

중년이 되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동맥경화가 있다. 이것은 혈관이 철사처럼 굳어져 버리는 질병이다. 과거에는 동맥경화의 범인이 콜레스테롤 뿐이라고 생각해 왔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새롭게 중성지방도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중성지방의 정상치는 혈액 1dl 중 70~170mg. 중성지방치는 공복시에 측정하지 않으면, 일정치 않다. 공복시에 200을 넘으면 동맥경화증에 주의



■ 혈액

우리들의 혈액량은 오래전부터 체중의 1/13이라고 알려져 왔다. 교통사고나 큰 부상에서 흔히 과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상처가 크지 않아도 출혈량에 따라서 사망이 결정된다. 현혈로 채혈되는 혈액량은 200~400cc정도인데 이 정도의 양으로 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 출혈이 1ℓ를 넘으면 즉시 수혈을 합니다.



- 혈액 색에 따라서 병명을 판단할 수가 있다.
- 위궤양에서의 출혈은 강한 위산과 혼합된 검은 혈액
- 기침과 함께 새빨간 피가 나오면 폐에서의 각혈
- 빨간 혈변은 직장암이 의심
- 새빨간 피를 토할 경우는 식도에서 출혈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들의 몸은 그 정도로 간단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내에서의 화학 반응은 언제나 정상 상태가 되도록 강한 제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약알칼리성인 우리들의 몸은 산성 혹은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려는 상태가 되면 본래대로 되돌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PH 7.35~7.45

